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인공지능, 스마트 그린시티를 중  
심으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 <세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인공지능, 스마트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이수영 의장

정책과 입법연구소 |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이수영은 대학에서 국제법과 국제정치경제를 전공했으며 현재 인사혁신처 전임강사로 활동 중이다.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통일부, 법제처, 병무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창의·융합·혁신 분야 대표 연구자로서 “국제법, 과학기술 정책, 경영혁신, ESG, SDGs, 인권”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통섭적 연구, 정책, 강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Kr-IGF의 공동위원장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 빅데이터,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인터넷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기여했으며 인터넷 소사이어티(ISOC) Accessibility Standing Group / 아·태 지역 전문가로 속해 있다. 대통령 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인사혁신처장 표창, 법제처장 표창,

# <세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인공지능, 스마트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황 교 육 박사

통일부 경남통일교육센터 운영위원



황교육 박사는 2016년 통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및 정책 발굴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경남형 남북 환경 협력의 하나로 람사르 협약을 활용한 경남 차원의 습지·철새 보호 환경 협력 방안 등 지역형 그린데탕트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센터장을 지냈으며,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평화통일교육,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반도 문제 분석 연구, 북한의 SDGs 이행과 스마트도시 방향성 등 다양한 융합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세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인공지능, 스마트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김다예 대학생

국립목포대학교 환경교육과 / 환경분야 청소년 활동가



김다예는 환경교육과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자 환경분야의 청소년 활동가이다. 주로 SDGs, 환경교육,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에 관심이 많으며, 환경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림청,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에코맘코리아,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국내 환경문제와 관련한 캠페인 및 교육기부 활동을 펼쳤으며, 환경문제의 국제협력에 집중해 UNEP, WWF 등에서도 활동했다.

최근에는 KOICA에서 주관하는 캄보디아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과사용 문제 및 쓰레기 분리배출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UArctic 북극대학 아카데미에 청년 대표로 참여했으며, GIST 지구환경공학부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인턴으로도 활

# <세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인공지능, 스마트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여인표 대표

메타플래그



여인표는 메타버스를 주요한 사업으로 운용하는 메타플래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또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디지털 기술 기반의 VR 및 AR과의 융합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ICT와 청년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진 주요 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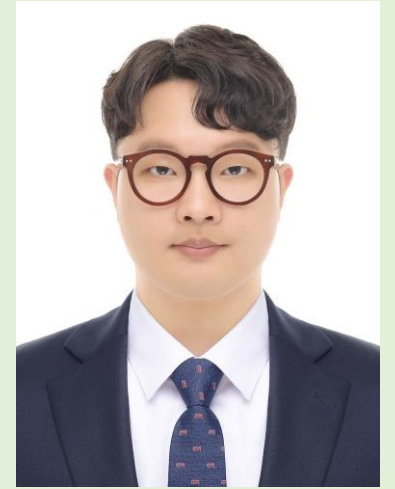
한편, 청년정책 연구자이자 위원으로서 국회에서 개최된 로스타 K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현재 이 내용을 토대로 한 지역창업가를 위한 창업지원카드 정책이 대전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그린뉴딜 등 지속가능발전의 일환으로서 환경문제와 관련해 인터넷 기술 및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언택트 토대 위에서의 디지털 대전환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관광자원 등에

# <세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인공지능, 스마트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김민찬 대표

초코뮤직 / 로컬 공연 에이전시 스타트업 및 환경기술정책 연구자



김민찬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 기술창업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로컬 공연 에이전시 스타트업 (주)초코뮤직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글로벌 역량 강화차원에서 미국 실리콘 벨리에서 현지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사회혁신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의 환경 및 기술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탄소 절감 및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변 블레이드 풍력발전기를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부산 금정문화재단 문화 리더, 부산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멘토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기관 등에서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산학 기반의 교류 협력자이자 청년 창업가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 <세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인공지능, 스마트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이 동 학 대표

쓰레기센터



이동학은 '지구촌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쓰레기센터' 대표로 활동 중이다. 주로 쓰레기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이면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쓰레기 재앙과 기후 재앙이 곧 닥칠 것이라는 절박함에 다른 일을 제쳐두고 2년 동안 전 세계 61개국 157개 도시를 여행하며 환경과 쓰레기 문제를 직접 취재한 후 이를 정리한 '쓰레기책'을 출간하며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 책은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선정하는 '2020년 상반기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됐고,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전 연령 우수환경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 <세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인공지능, 스마트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박슬기 공동대표

지금 지구 / 환경교육 스타트업



박슬기는 대학에서 관광경영을 전공했으며, '청소년'이라는 대상에 각별함을 느껴 업을 전향하게 되었다. 교육 기업에서 진로·4차산업혁명·탄소중립 청소년 전문 강사로 활동하였으며 2021년 환경부 사회환경교육 청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금지구'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환경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또 다른 오염을 창출하고 불필요한 탄소 배출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지구는 다회성 교구재의 사용과 디지털 툴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이 적은 교육 운영을 지향한다. 지금 지구에서 개발한 <ZERO-HIT> 보드게임은 탄소중립 거점·중점학교에 보급되어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세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인공지능, 스마트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조영우 대표

우짜, 날씨 관련 스타트업 / 환경과학 석사



조영우는 고향인 포항에서 지진 발생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창업을 결심했으며 2019년 날씨 스타트업 우짜를 운영중이다. 현재는 일기예보에 필요한 기상장비, 기상데이터를 다루며 특히 강수(비)정보에 특화 되어있으며, UN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11번과 13번에 초점을 맞추어 "소셜벤처"기업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특허청 표창 2건 및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존 대비 고해상도 기상관측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과 협업하여 전국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관측망을 구축하는 중이며, IOT, 디지털트윈, Ai, 블록체인 기술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들을 관측망에 적용하고 있다.